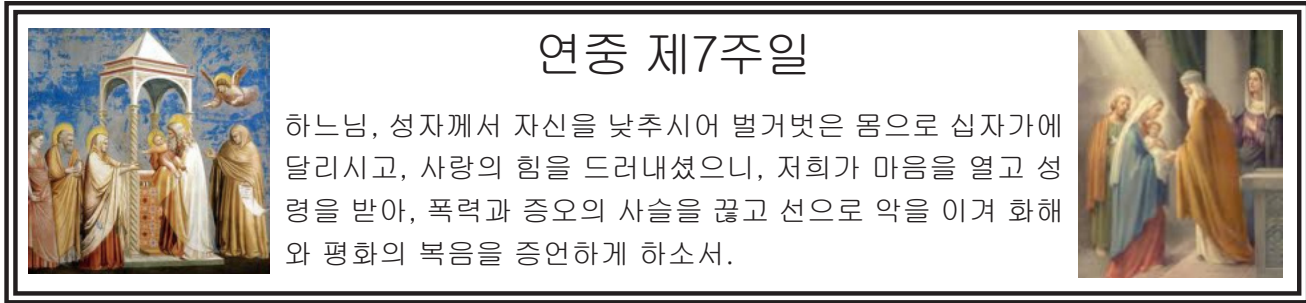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7주일

하느님, 성자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랑의 힘을 드러내셨으니, 저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 폭력과 증오의 사슬을 끊고 선으로 악을 이겨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가정
-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3월 기도지향 가정 :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가정/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가정

건진교리 일정

- 일시 :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회관
- 교재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재의 수요일’

- 일시 : 3/5(수) 오후 8시, 십자가의 길과 미사
- 의무사항 : 단식과 금육

구역 회의

- 일시 : 2/23(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재의 수요일(3/5)’ 이 다가옵니다. 성지까지 회수합니다.
- 다음 주일, 캔사스 대교구 사순절 운동으로 돼지 저금통 나누어 드립니다.
- 2/23(일) 중심미사에, 홀리트리니티 본당에 파견 나와 계시는 안 에드워드 신부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미사 봉헌을 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6	25	496/197	61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안광민(야고보)	이우영(가브리엘)
	정병훈(보나파시오)	고영방(스테파노)
차주	고영방(스테파노)	정수한(베드로)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찬(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카타리나)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차주	김명은(안젤라)	김정환(요한) 윤유나(글라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김화년, 박옥희, 안현숙, 전현교
차주	김주연, 김정애,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드로)
차주	백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2/16	97명	340불	1,050불
김태중, 유길수, 도태영, 김대성, 류기범, 주영길(총 6세대)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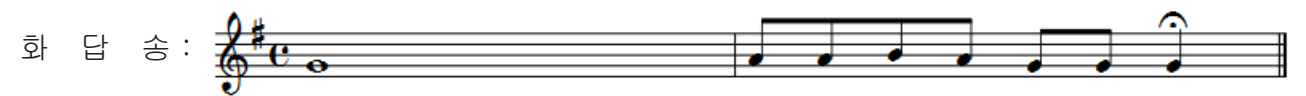
예로부터 진정한 종교인은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완전함은 외적인 경건함에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못살게 굴며 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자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의 미사 독서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데 과연 얼마나 충실했는지 성찰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41-42)
우리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하느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또 나를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레위 19,1-2.17-18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 주 님 께 서 는 너 그 러 우 시 고 자 비 로 우 시 도 다

○ 주 님 을 찬 양 하 여 라. 내 영 혼 아. 내 안 의 온 갓 것 도 그 이 름 찬 양 하 여 라.
내 영 혼 아. 주 님 을 찬 양 하 여 라. 당 신 의 온 갓 은 혜 하 나 도 잊 지 말 아 라. ◎

○ 내 모든 죄 악 을 용 서 하 시 고, 네 모든 아 픔 을 닦 게 하 시 니.
죽 음 으 서 네 생 명 구 하여 내 시 고, 은 총 과 자 비 로 관 을 씌 워 주 시 는 분. ◎

○ 주 님 께 서 는 너 그 러 우 시 고 자 비 로 우 시 며, 분 노 에 더 디 시 고 매 우 인 자 하 시 도 다.
죄 대 로 우리 를 다 루 지 않 으 시 고, 우리 의 악 대 로 갚 지 도 않 으 시 니. ◎

○ 동 녀 이 서 님 으 서 사 이 가 먼 것 처 럼, 우리 가 지 은 죄 를 멀 리 하 여 주 시 도 다.
아 바 가 자 식 을 어 여 뻔 어 기 듯 이, 주 님 께 서 는 그 섬 기 는 자 들 을 어 여 뻔 어 기 시 나 니. ◎

제 2 독서 : 1코린 3,16-23 <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복음 : 마태 5,38-48 <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

쉐 마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말을 텔런트 김혜자씨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특히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며칠 전 발톱을 깎다가, 깊이 깎는 바람에 걸을 때 불편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어느 한 곳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온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센 폭풍우 뒤에 따사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어둠을 뚫고서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모두의 시름과 고통을 씻어주는 한줄기 빛으로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고통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1독서인 레위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언제나 바쁘다고 합니다. 재난과 고통의 현장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국제 사회의 많은 구호 단체들은 자신의 일처럼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재난과 사고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인류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바람과 해님’이란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동화이지만 어릴 때 제게는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오직 자신만을 아는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17번째 결혼기념일 선물로 예비신자 교리 신청서를 적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17년 동안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시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며,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아내가 고마웠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아내가 그토록 원하는 신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몽클했습니다. 1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했던 그 자매의 정성도 놀라웠지만, 완고한 남편을 부드러운 남자로 변화시켜 주신, 그래서 지금은 구역장 일도 열심히 하는 그 남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힘에 놀랐습니다.

온갖 사건과 사고의 틈바구니에서, 마치 바위틈에 여린 꽃이 피는 것처럼 주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병 들고 아픈 아이들을 입양해서 기르는 가족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기꺼이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어른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참아서 드디어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분도 있습니다. 자칫 어둠에 가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논리에 가려서 아름다운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묻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결국 어둠을 이기는 한줄기 빛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대 주십시오. 누군가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십시오. 누군가 걸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십시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야 사람의 칭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마중물

하느님과 비극의 문제

신학교 강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실 뒤쪽에 앉았던 한 학생이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하느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왜 금하지 않으십니까?”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교수 신부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학생이 이유 없이 내 얼굴을 주먹으로 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학생이 나를 치려는 순간 하느님이 그것을 막으신다면, 학생은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는 악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역사도 중지될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고, ‘인류 역사’라는 실험도 끝날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마다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로봇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자아’(自我)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용기, 정직, 충성, 성실, 심지어 사랑도 그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택’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꼭두각시가 되어 고통 없이 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살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82. 하느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제, 예언자, 왕의 직분에 참여합니까?

하느님의 백성은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써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참여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과 봉사의 책임을 집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83항 참조).

83. 하느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까?

하느님의 백성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신앙과 세례로 이 백성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 백성의 독특한 소명, 곧 사제 소명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히신 대사제 주 그리스도께서는 새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셨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다”(교회헌장, 10항; 가톨릭교회교리서 784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